박여범 소소한 일상

나의 고백은 민들레 홀씨되고(Ⅲ)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5, 아! 민들레야, 민들레야

"어머, 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예쁘지? 민들레꽃이야. 한방에서는 꽃피기 전의 식물체를 포공영(蒲公英)이라는 약재로 쓴다고 사전에 나와 있어. 그리고 열로 인한 종창 · 유방염 · 인후염 · 맹장염 · 부박염 · 급성간염 · 황달에 효과가 있으며, 열로 인해 소변을 못 보는 증세에도 사용하곤 해. 민간에서는 젖을 빨리 분비하게 하는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하네. 한국 · 중국 · 일본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구나."

"그렇군요! 약재로도 쓰이는군요?" "아! 생각났어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부른 '일편단심 민들레'의 그 민들레가 그 민들레인가요?"

"그렇지, 노래에도 민들레가 있었구나."

아이들은 민들레가 학교 주변에 많이 피어 있었음에도,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존재에 둔감했다. 오히려 '선생님은 왜 민들레꽃이 예쁘다고 난쏠 하시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 모양이다.

예년보다, 더욱 민들레가 교정 곳곳을 가득 채워 주었다. 덕분에 나의 마음도 풍성해졌다. 교정을 잘 거닐던 나에게는 한 번이라도 더 교정을 걷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꽃에 관심이 없던 나에게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추억으로 남기는 영광(?)도 베풀어 주었다.

정말로 언제가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한다면, 교정에 펼쳐진 꽃 이야기를 글로 써서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다. 게으름으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이제야 민들레를 글감으로 시를 한 편 써 보았다. 제목은 '민들레'다.

스쿨버스 다니던 그 자리에 턱
하니 자리 잡고 얼굴 내 미인
민들레 식구
올망졸망 아스팔트 사이
좁디좁은 곳에 망설임 없이
피어난 잔망스런 희망
여우비를 기다리는 땡볕의
목마름으로 처연하게 바라보는
텃새의 재잘거림
태양이 멀어져 가도 아무런 말
없이 오늘도 무사히 내일을
준비하는 나그네 ?
단칸방 아랫목 태양 없는 그
자리에도 불쑥 고개 내밀 내
미인 민들레 식구

(-민초 박여범, '민들레' 전문-)

위의 시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꽃이 있게 마련이다. 장미, 튤립, 개나리, 매화, 진달래, 산수유, 목련, 백합 등등 좋아하는 꽃들을 보면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 다양한 특성을 하나로 잡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민들레'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작은 소망이다.

아이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라다보면, 한 송이의 꽃이다. 아름다운 한 송이의 귀하 디 귀한 꽃. 그들의 삶이 이우러지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예쁘다고 우기고 시기하다 보면, 학교는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짐을 방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민들레 같은 아이들이 이 시대가 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멋진 아이들이 아닐까 한다.

예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밉지도 않은 민들레, 우리들의 아이들, 그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복함으로 희망으로 아이들과 만난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OK'일 것이다. 이런 세상은 꿈이 아니다. 우리는 현실로 이루어 낼 수 있다.

6.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집에서 깨어나고, 아침을 준비해서 먹고, 출근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한다. 누구나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가 아닐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과 환경에, 사람과의 만남이 나와 지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도일 것이다.

인생 싣고 떠나가는 세월이
순환 열차라면 좋겠네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자리
변함없는 그곳에
나날이 연약해지는 마음 묻어
놓고
청춘 꿈을 키워보고 싶네
마음은 초심으로 돌아가
못다 한 사랑
잃어버린 노랫가락
부메랑으로 날려 보고파

각자 삶의 십자가 메고
열차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
순환 열차도
어느 지점에선 내려야 하는 법

어리석은 회춘 미련 버리고
흐르는 세월 시간 속
남은 길 아름답게 걸어가 보자

(-'기도하는 마음', 위의 책, 26-27쪽- 전문)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마음은 평안함과 행복일 것이다. 위의 시에서 시인은 /인생 싣고 떠나가는 세월이/순환 열차라면 좋겠네/라는 시적 언어로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자리/변함없는 그곳에/나날이 연약해지는 마음 묻어 놓고/청춘 꿈을 키워보고 싶네/처럼, 그 많은 시절, 연약함으로 청춘을 날려버린 아쉬움을 곱씹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흐락흐락하지 않다. /마음은 초심으로 돌아가/못다 한 사랑/잃어버린 노랫가락/부메랑으로 날려 보고파/한다. 그렇지만, / 지 삶의 십자가 메고/열차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순환 열차도/어느 지점에선 내려야 하는 법/이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리석게 회춘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그리고 주어진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여생을 아름답게 걸어가자는 이 시의 주제가 훅, 마음에 들어온다.

사 설

LH 혁신 과연 가능한가

LH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강도 높은 혁신을 공언했던 정부가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개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 말대로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인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지난 3월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안 마련을 약속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혁신안은 1개의 지주회사에 LH를 포함한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주택 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LH가 하던 비핵심 사업은 나머지 자회사가 담당한다. 지주회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 · 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직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2 · 4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너 개의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그리고 주택 공급의 일관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 복지 강화의 계기로 삼는 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사장과 부사장 등에게만 적용하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LH 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받는 사례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여전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다는 비난이 거세다. 최종 혁신안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

다가오는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현 교육감이 출마를 못하기 때문이다. 직 · 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벌써부터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는 등 이미 뜨거워진 상태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총장 재임 시절 끊임없는 경쟁력 제고 정책을 통해 전북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이다. 지난 선거에서 28.95%의 지지율을 획득, 2위를 차지했다.

이항근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혁신학교 전문가로 통한다. 군산 회현중 공모 교장으로 부임해 전북을 대표하는 혁신학교로 탈바꿈시켜 전국에서 찾는 모델학교로 발돋움시켰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수업 연구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불린다. 가장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상철 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은 현 교육감과 함께 전북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 행정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중앙 부처인 교육부에서의 오랜 경험은 물론이고 주 OECD대표부 교육관으로 근무하면서 선진국의 교육 제도를 피부로 접했다.

한편 진보적 시민단체 연대체인 전북교육네트워크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단일화 작업에 들어간다.

전북교육네트워크는 도내 모든 시민사회단체에 민주진보 후보 선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9월 중에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출위원회 구성을 마치면 10월 중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12월에는 한 명을 후보로 선출하는 내부 단일화 절차를 마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다자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달아오른 전북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는 단일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위험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코로나19 사태가 일 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이버 도박으로 진화 중이다.

사이버 도박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도박하는 것이며, 사다리게임, 달팽이, 로하이, 스포츠 토토 등이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11.7%로 열 명 중 한명이 돈내기 게임을 온라인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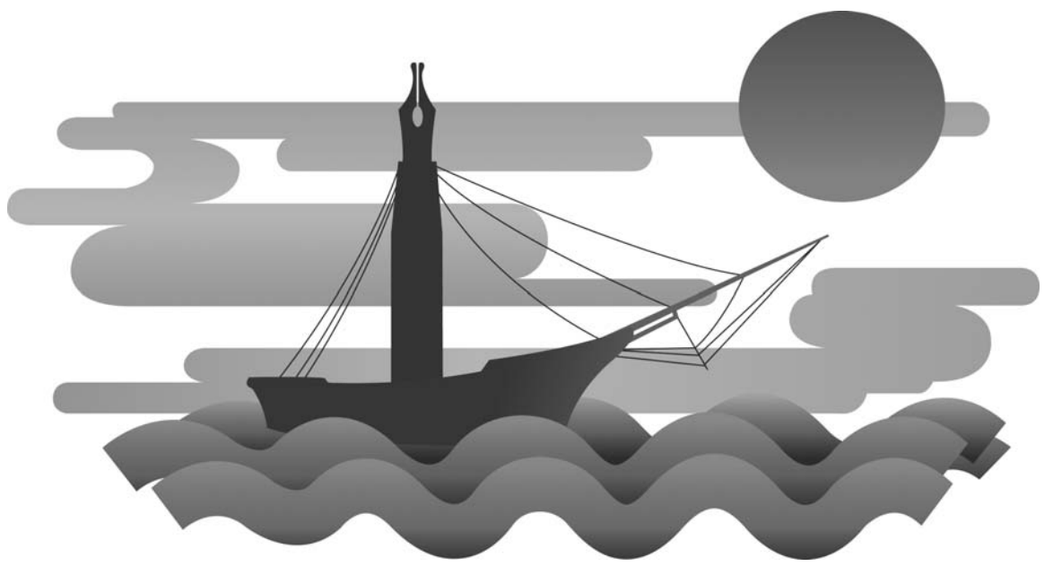
또한, 도박 위험 집단의 비율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남자가 7.5% 여자가 5.3%,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가 23.9% 여자가 13.2%로 고학년이 될수록 도박문제 위험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비접촉이 늘어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각종 게임이나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빈도는 점점 높아지며 또한 청소년은 도박을 범죄라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하는 놀이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접근의 용이성이 좋다.

도박을 소액으로 시작하며 사이버 머니를 따고 잃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비싸게 받고 이에 대하여 불법 추심행위, 학교 폭력 등 및 도박자금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인터넷 사기 등 범죄를 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자녀가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항상 감시할 수 는 없지만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는지 가정 내 관심이 필요하며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 확충과 사행 산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 등 사회 전체의 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

이현지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